범어사, '지유 대종사 선설법회' 연다

〈禪說〉

12월 27일~31일 범어사 보제루

함허득통의 금강경 서문 禪說
원융화합 일심수행 당부의 장
참석 희망자 누구나 참석가능
기초 수행금 지원, 신청 받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가 12월 27일부터 31일 보제루에서 '방장 지유대종사의 함허득통선사의 금강경 서문 선설(禪說) 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방장 지유대종사의 설법 모습.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12월 27일부터 31일 보제루에서 '방장 지유대종사의 함허득통선사의 금강경 서문 선설(禪說)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특별법회는 부처님이 깨달은 날을 기념하는 성도재일을 맞아 수행 정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일간 매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부대중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범어사는 2016년 10월 1338주년 개산대재 행사의 일환으로 금강경 선설법회를 봉행한 바 있다. 이후 6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법회는 범어사 대중의 원융화합과 일심수행에 전념할 것을 발원하고 독려하는 지유 대종사의 발원으로 마련됐다.

'함허 득통 선사의 금강경 서문'은 함허 득통 스님(1376~1433)이 〈금강경오가해〉를 풀어 적은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의 서문이다. 〈금강경오가해설의〉는 〈금강경〉에 대해 규봉 종밀, 육조 혜능, 부대사, 야부 도천, 예장 종경 등 오가(五家)가 붙인 글 '금강경오가해'를 함허 득통 스님이 해설한 주석서이다. 1417년에 함허 득통 스님이 탈자, 중복, 오자 등을 바로잡고 정확한 교정본을 만들었으며, 이 책으로 인해 〈금강경〉이 우리나라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의 서문은 함허 득통 스님이 설명하는 선의 세계를 함축하고 있다.

범어사는 이번 특강과 관련해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은 "방장 스님이 이번 법회를 직접 제안해주셨다"며 "그동안 방장 스님의 법문에 목말라하는 불자들이 많았던 만큼 선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수행을 실천하는 정진의 장이 될 것이다. 새해를 수행 정진으로 맞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보운 스님은 "이 시대 불자들에게 겨울 동안거와 성도일 용맹정진을 새롭게 적용하고 정진하도록 돕는 법석"이라며 "방장 스님의 명쾌한 선 법문으로 〈금강경〉에서 설명하는 깨달음의 요체를 발견하고, 함허 득통 선사의 가르침과 경전의 핵심을 체득해 재발심과 점검의 기회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유 대종사는 동산 스님을 은사로 1949년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50년 해인사에서 구족계를 수지 후 제방 선원에서 수행 정진했다. 1975년부터 1977년까지 범어사 주지였으며, 1991년 범어사 조실로 추대됐다. 2013년 5월 21일 산중총회에서 금정총림 방장으로 추대되었으며, 현재 범어사 원효암에 주석하고 있다. 지유 대종사는 현대 한국을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회마다 즉설법문으로 대중에게 선의 요체를 전하고 있다.

한편, 범어사는 재적 비구와 비구니스님에게 기초수행금을 지원한다. 기초수행금은 범어사 소속 수말사에 책정된 특별분담금을 기금으로 진행되며 특별분담금 지정사찰은 마하사, 법륜사, 선암사, 성주사, 운수사, 은하사, 장안사 등이다.

신청 자격 및 지급 대상자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한 범어사 재적승으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종단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사찰(공찰, 사설, 포교원, 산내 암자)의 주지(대표, 감원)가 아닌 스님이며, 사찰과 종단, 기관, 시설의 소임자는 월 보시 100만 원 이하를 받는 스님에 한한다.

지급 시기는 2023년 1월부터이며 매월 15일 지급한다. 지급액은 매월 20만 원이며 신청 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지급액 변동이 있을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은 12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9일까지이며 1차 신청 후에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범어사 홈페이지에서 기초수행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통장 사본과 함께 범어사 종무소 및 이메일(beomeosa@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수행자 사표' 무애 대종사 영결식 엄수

12월 11일 통도사 송수정서 영결식



통도사 안양암에 주석하며 검소함으로 수행자의 모범을 보였던 무애당 무애 대종사의 영결식이 12월 8일 통도사 다비장 앞 송수정에서 엄수됐다. 무애 대종사는 12월 9일 오전 7시 30분 주석처인 통도사 안양암 심우실에서 입적했다. 법납 61년, 세수 81세다.

영결식에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주지 현문 스님, 前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경봉문도회스님 및 사부대중이 참석해 무애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영결식은 행장소개, 영결법요, 헌다·헌향이 이어졌으며 장의위원장이자 통도사 주지인 현문 스님의 추모사, 前 조계종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의 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현문 스님은 "통도사 도량과 무풍한 송길을 거니시며 언제나 총림의 대중이고자 하셨던 스님께서 영축산 영산회상의 부처님 품에서 홀연 열반에 드셨다"며 "대종사의 이별을 고한 저희들의 가슴은 대지를 비추는 환한 산달처럼 텅 비어가고 있다. 스님은 매일 하루도 거름 없이 안양암에서 산문에 이르는 길을 두량하시며 본분종사의 일상사를 있는 그대로 보이셨다"고 추모했다.

지안 스님은 "스님은 조용한 성품에 검소하게 사셨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삼갔으며, 공사가 분명해 승가의 위신을 올곧게 세우고 사셨다"며 "영원한 부처님의 세계를 동경하며 살아온 세월이 깊어서, 사바에서 맺었던 인연이 부처님 나라로 돌아가는 환지본처의 길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원의 원력이 펼쳐지는 대로 원적의 안락을 누리다가 속환사바하시라"고 말했다.

종현 스님은 "무애 대종사는 오랜 시간 통도사에 머물며 평생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사시고 수행정진하신 스님"이라며 "자애롭고 올곧은 스님의 뒤를 이어 우리 후학들은 더욱 정진수행 할 것이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도를 대표한 종현 스님의 인사말 후 사부대중은 법구를 연화대로 이운했다. 연화대에 도착한 스님의 법구는 대중들의 애도와 장엄 염불 속에 사라졌다. 검소한 수행자의 사표로 통도사 대중의 존경을 받은 무애 대종사는 사부대중의 배웅 속에 적요의 세계로 떠났다.

무애 대종사의 초재는 12월 15일 안양암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6재까지 거행됐다. 2재는 동지날로 인해 12월 21일 봉행한다. 49재는 다음해 1월 2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오전 9시 20분에 봉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반야암 해운대 포교원 개원

12월 13일 개원법회 봉행



마산과 경남 지역 경전 공부의 전당이었던 반야불교학당이 통도사 반야암 해운대 포교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부산 해운대에 새롭게 자리 잡았다.

새롭게 문을 연 통도사 반야암 해운대 포교원(원장 신경, 이하 반야암 포교원)은 12월 13일 부산 해운대 포교원에서 개원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그동안 반야불교학당을 이끌어왔던 지안 대종사는 "법당은 무엇보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며,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늘 개원을 통해 공부에 대한 발심을 내고 더욱 성장하길 바라며 포교원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안 대종사는 일반 불자의 경전 공부가 전무했던 1978년 당시 부산 남부민동 대법사에서 재가자를 대상으로 경전 강의를 시작했다. 불교경전을 토대로 미신과 기복에 치우치지 않도록 제도하는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불교의 지성화와 생활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후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마산 정법사 주지 당시 〈대승기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가교육에 앞장서왔다. 이후 경남 지역 불자들은 동참금을 마련해 마산 삼원빌딩에 개원하고 30여 년 동안 경전공부를 이어왔다. 그동안 지안 대종사는 〈육조단경〉, 〈임제록〉 등 수 많은 경전을 강설해왔다. 지안 대종사는 1970년 통도사에서 벽안스님을 은사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받았고 통도사 강원을 졸업했다. 운허 스님의 강맥을 이었으며, 통도사 불교전문강원 강주, 조계종 고시위원, 조계종교육원 역경위원장, 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 원장, 조계종 고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통도사 반야암 감원,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반야암 해운대 포교원은 마산 삼원빌딩 재건축으로 인해 이전하게 됐다.

반야암 포교원 경전 강독은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장(書狀)〉 강의를 시작으로 열린다. 강사는 지안 대종사이다.

또 사찰 기본 예절교육과 불교의식·기초교리는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와 7시 30분에 각각 진행되며 강사는 원장 신경 스님이다. 신행을 위한 인등 법회는 2월부터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지안 대종사가 법문한다. 신중기도는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051)747-018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쿠무다, 개원 9주년·명상문화센터 1주년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KUmuda, 이사장 주석)가 '개원 9주년 및 명상문화센터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법회 및 음악회를 12월 9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쿠무다 명상문화센터에서 봉행했다. 행사에는 정산 스님(마하사 주지),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 석산 스님(안국선원 주지), 만초 스님(전법도량 의장), 원돈 스님(시흥 대각사 주지), 정관 스님(원오사 주지), 묘련 스님(법계사 주지), 최원심(원불교 교무), 신명환 대운사 신도회장,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기념사에서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로서 문화전법이라는 이 이름으로 부처님 팔만사천법문의 한 자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원력으로 삼았다. 그 원력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시대가 원하는 것, 그리고 현대적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우리 수행자가, 불교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살아 갈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해 내년 10주년에는 또 다시 어른 스님들과 내외귀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한 번 자랑할 만한 일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이사이자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과 최대경 이사의 환영사 및 승·재가 내빈들의 기념 축사도 이어졌다. 한편, 쿠무다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7시에는 서울 종로 JCC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명경문화재단 설립 기념 및 조윤성 재즈피아니스트 명상음반 제작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신뇨엔, 해외불교문화 탐방 장학금 지원

동명대에 1000만 원 지원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이 12월 17일 부산정사 법당에서 '동명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및 불교동아리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은 동명대 불교동아리 학생들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의 해외불교문화탐방 지원금으로 회향된다. 장학금은 총 1000만 원이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마쯔나가 아쯔시 신뇨엔 국제원장, 신뇨엔 상임이사 정경 국원, 신뇨엔 부산정사 영준 국원, 장재진 동명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장과 학생 20여 명이 동참했다.

마쯔나가 아쯔시 신뇨엔 국제원장은 "신뇨엔 개조님은 항상 청년들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성장해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하림 스님, 시민 위한 명상 특강



CM명상상담센터를 이끌고 있는 (재)영도문화복지재단 이사장 하림 스님의 명상 특강이 12월 10일 동명대학교 경영관 강당에서 열렸다.

특강은 '시민과 함께하는 치유 특강-명상을 통해 세상을 보자'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 박재현 학과장 및 동명대학교 선명상치유학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특강은 지식전달형 강의가 아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이코드라마 형식으로 진행해 학생들의 이해력과 관심을 높였다.

하림 스님은 "우리는 예쁜 꽃을 보는 순간에 기쁘고 계속 보고 싶어 하고, 싫은 것을 보면 불뚝이처럼 싫어하는 의식이 자동으로 생긴다. 그런데 대상이 사라져도 마음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늘 마음하고 싸우고 있다"며 "마음을 떨어져서 자세히 보아야 한다. 그러면 익숙하게 되고 영향을 적게 받게 된다. 마음치유는 그냥 될 수 없고 오감명상, 호흡명상, 걷기명상 등을 통한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호환 총장은 "지금 세상은 전쟁과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 송년의 밤 개최



울산광역시신도회(회장 이병호)가 12월 13일 울산 문수컨벤션 다이너스티홀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올 한 해 지역불교발전과 전법에 공로가 큰 불자들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통도사 방장 스님상을 불교여성회 김미선이 수상했다. 통도사 주지스님상은 불교신도회 강한설, 김용석, 조계종 사암연합회장상은 불교신도회 김정미, 정토사 정연숙 합창단장이 수상했다.

또 울산시장상은 불교신도회 박정화, 울산시의회 의장상은 불교신도회 배상철, 사암연합회 합창단 이경숙, 지정정사 합창단 남순일, 불교여성회 김수화, 정토사 합창단 지휘자 박준홍이 수상했다.

이 날 송년의 밤 행사에는 이병호 울산불교연합신도회장, 정토사 덕진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벽선암 혜진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법륜사 남수 스님, 지장정사 현우 스님, 이영수 신도회수석부회장, 박순란 울산불교교육대학동문회 회장, 조미강 울산불교 선다회장, 각 사찰 합창단장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교육대학총동문회, 음악회 개최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불교교육도량인 울산불교교육대학(학장 진응)과 총동문회(회장 박순란)가 12월 9일 울산예술문화회관에서 제21회 함께해요 우리! 발고여락(拔苦與樂) 무루(無漏)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법요식과 2부 공연으로 진행됐다.

울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는 1994년 울산불교교육대학동문회를 창립 후 일일찻집 자비성금 학생 10명에게 2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학생 455명에게 자비성금 1억 3570만 원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산 정법사, 삼귀의·오계 수계법회 봉행



통도사 마산중앙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가 12월 10일 정법사 2층 만불보전에서 삼귀의계,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전계사 덕문 스님은 "사람은 계를 잘 지키는 사람과 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며 "보시를 하면 많은 공덕이 따르지만 부처님께 보시하면 무량공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수계법회에는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전계아사리 덕문 스님, 교수아사리 정문 스님과 송정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 안미옥 신도회장, 신도 및 수계제자들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